

“민주 입실군수 경선 결과, 여론과 괴리”

김진명 예비후보, 중앙당에 재검표 공식 요청 “단순 변동으로 보기 어려워... 결과 공개해야”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입실군수 예비후보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지자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입실군수 경선 결과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 중앙당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선 결과는 단순한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축적된 여론 흐름과 데이터 분석 결과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출공 선두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최종 경선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입실을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 경선 결과는 대체로 여론조사 추세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독 입실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변동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캠프 측의 자체 집계 결과가 상세히 공개됐다. 캠프 조직본부장 권도현 박사는 “그동안 JT, KBS, MBC 등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캠프 측의 콜백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왔으며, 실제 조사 결과와 자체 집계 간 오차가 1%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일치도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권 조직본부장은 구체적으로 “3월 15~16일 JT·전국일보·전라일보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자체 콜백 100명을 기준으로 32% 지지율이 산출됐고, 실제 발표는 31%로 1% 차이에 그쳤다”며 “이어 KBS 조사에서는 29.2% 대 29%, MBC 조사에서는 37.0% 대 37%로 각각 0.2~0.0% 수준의 미미한 오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검증 과정을 통해 캠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 본경선에서도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콜백 집계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캠프 측에 따르면 자체 집계 결과 김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544표, 안심현호 선거인단 투표 784표를 확보해 총 2,328표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 본부장은 “예비경선 당시에도 약 1,300여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실제 결과와 유사한 추정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만큼 결과의 신뢰성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캠프 내부 분석으로는 약 49% 수준의 득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 경선에서 적용되는 갑집이 최대 25% 수준이라 하더라도 최종 득표율은 30% 초반대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후보들의 가산점을 고려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입실군수 예비후보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지자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입실군수 경선 결과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 중앙당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정도의 격차는 아니다”며 “데이터에 근거할 때 자신이 1위를 기록했어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캠프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한 추정이나 실재 투표 참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자료”라며 “이름, 연령, 거주지 등 구체적 정보를 기반으로 중복과 허수를 철저히 걸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각 지지자 조직을 통해 투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선거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재검표 요청과 함께 △경선 결과의 투명한 공개 △재검표 실시를 통한 의혹 해소 △최소한의 검증 가능한 기준 제시 등을 당에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후보를 겨냥하거나 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의 신뢰를 지키고 공정한 경선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의혹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선 방식 자체의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기회가 있다면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자신의 36년 정치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입실군수 경선에서 김병이 후보와 한득수 후보가 결선에 올라, 20일과 21일 사이에 결선을 치러 그중 다수 득표자가 민주당 입실군수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10만호기자·임실=진홍영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5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D-day 관 앞에서 관계자들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통합으로 익산 대도약 이끌겠다”

민주 조용식·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 ‘단일화’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용식 예비후보와 심보균 예비후보가 정책연대를 통한 단일화를 공식 선언하며, 익산 발전을 위한 공동 행보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14일 익산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를 향한 시민과 당원의 간절한 열망을 하나로 모아 익산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정책연대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한 후보 간 연합이 아닌 익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시대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시정 운영 구상과 관련해 조용식 후보는 시장으로서 시민 중심 행정을 이끌고, 심보균 후보는 정책 견제와 보완 역할을 맡아 균형 있는 공동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원팀 시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는 공동 정책 비전으로 △AI 기반 첨단산업단지 조성 △익산·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르는 10만 메가



스티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 △바이오 식품 수도 익산 실현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2 단계 추진 △농생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여성·어르신·아이기 모두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두 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흑색 선전, 마포도어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가짜 정치에 맞서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로 결과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10만호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양당 독점정치 개혁”...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선대위 출범

노동당 도당·정의당 도당 전북노동연대 등으로 구성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선거대책위원회가 14일 출범하며, 전북 지역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선거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양당 독점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대전환을 전북에서 실현하겠다”며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전북도당(비), 전북녹색당,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민수노조 전북본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책방 토닥토닥 등으로 구성된 연대회의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선거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보수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오는 6.3 지방선거에는 정의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로 강은희

전주시의회 의원선거 차 선거구(우애·2동, 호성동에) 오현숙 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재동에) 한승우 후보가 출마한다.

노동당에서는 전주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임소희 씨가 출마해 진보 정당 간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선

거대책위원회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상윤·최은숙 전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정훈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대표, 김한호 노동당 전북도당 비상대책위원장, 오현숙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참여한다.

선대위 자문위원에는 노병섭 전 민주노동당 전북본부장과 박우영 전 민주노동당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서유석 전 호원대학교 교수, 차상철 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마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실무를 총괄하는 공동집행위원장은 김민아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과 체인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이 선임됐다.

10만호기자

“민주 도지사 경선 관련... 청년 제보자 보호 우선”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전북 정치, 구조적 책임 정치로 전환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성수 예비후보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보다 청년 제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전북 정치에 필요한 것은 진실을 말한 청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치”라며 공익 제보자 보호와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진실은 보호하고 책임은 법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원택 후보에게 경선 관련 의혹에 대한 직접 소명을

촉구하며 “수사기관 판단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후보에 대해서도 “단식에 앞서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북 정치가 사건 관리에 머물지 말고 구조적 책임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위에서 책임지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를 안은 체 선거를 치르는 것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정치권의 선제적 책임을 촉구했다.

10만호기자

▶ 6·3 지선 예비후보자 공약

전주형 온 생애 맞춤 복지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시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전주형 온(溫) 생애 맞춤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도시 인프라 중심 발전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 직접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세대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5대 그물망 복지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긴급 돌봄 등을 포함한 아이 키우기 정책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에는 창업공간 제공과 정착 지원을 묶은 ‘전주 리턴즈’로 지역 유입을 유도한다.

또한, 4050 세대를 위한 재도약 지원 노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정책 중증 질환 가족을 돌보는 가정을 위한 생계 지원 등 전 생애에 걸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 후보는 “복지는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 최우선 도시 조성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으로 한 ‘시민 안전 최우선 도시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원도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산업현장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예비후보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시장 직속 안전 여사대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화재 예방 대책으로 특수 가연물 관리 정보 공유, 스마트 화재 감지기 교체, 샌드위치 패널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대응으로는 기존 35도 이상 시 공공사업장 야외 작업 중지 명령을 도입해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를 통해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10만호기자

익산시립 반려동물병원 설립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장 후보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 ‘익산시립 반려동물병원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2026~2030)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와 의료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오산면 유흥 건물을 활용한 시립 동물병원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원 인근에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펫티켓 교육시설과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후보는 경기 성남시 시립동물병원과 여주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사례로 들며 공공 동물의료 모델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10만호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연 200만원 농촌기본소득 추진

한득수 입실군수 예비후보



한득수 입실군수 예비후보는 14일 입실군청 브리핑룸에서 입실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입실군민 모두에게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의 구체적 지급 방식으로 월 15만원, 연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햇빛·나무연금 사업을 통해 연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연 2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무연금은 산림자원화 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소득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입실 치즈 산업의 부산물인 ‘유청’을 활용한 수익화 전략이 제시됐다.

한 후보는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유청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0만호기자·임실=진홍영기자